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엠에스오토텍(123040)

## 자동차/부품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김유진 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R협회

## 엠에스오토텍(123040)

핫스탬핑 기술의 선도주자, 전기차 부품으로의 사업 확장

## 기업정보(2021/01/01 기준)

대표자	김범준
설립일자	1990년 09월 06일
상장일자	2010년 08월 06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주요제품	자동차 차체 부품

## 시세정보(2021/04/12 기준)

현재가(원)	7,12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2,473
발행주식수	34,727,204
52주 최고가(원)	12,600
52주 최저가(원)	4,175
외국인지분율	0.27%
주요주주	심원

## ■ 차량 공조시스템 부품 분야 선도기업

엠에스오토텍은 자동차 차체 부품 제조 전문기업으로, 자동차 뼈대를 구성하는 Moving Part 모듈, Side Part 모듈, Floor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30년 이상의 업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핫스탬핑 공법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종속법인 명신산업과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여 핫스탬핑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현대·기아자동차, 미국의 Tesla, 중국의 Byton 등의 주요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 ■ 탄탄한 원천기술력 보유, 전기차용 부품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동사는 기술연구소를 운용하며 경량화와 친환경이라는 산업 트렌드에 맞춰 그린카 차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TWB 공법, 하이드로포밍 공법 등 기존 경량화 공법 개선에서 나아가 다중소재가 적용된 경량부품 제조공정 및 접합 기술 개발,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핫스탬핑 라인 개발 등 신기술 개발을 통해 경량화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 ■ 글로벌 산업 동향에 따라 전기차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 진행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산업 중요성 부각에 따라 전기차 시장은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며, 핫스탬핑 시장도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의 안정성과 주행거리를 높이기 위해 고강도·초경량 부품 제조가 가능한 핫스탬핑 기술 적용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글로벌 산업 동향은 독보적인 핫스탬핑 기술력을 갖춘 동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자체 전기차 제조 생태계 구축을 위해 GM 군산공장을 인수하여 사업 확장을 진행 중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8,919	26.7	274	3.1	50	0.6	4.1	0.8	506.0	129	3,039	16.2	0.7
2019	12,744	42.9	667	5.2	348	2.7	13.8	4.1	374.9	551	4,859	10.9	1.2
2020	12,165	(4.5)	268	2.2	(1,460)	(12.0)	(87.4)	(14.4)	332.3	(2,693)	1,375	N/A	6.5



## 기업경쟁력

### 전략적 기술경영을 통한 경쟁력 확보

-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핫스탬핑 기술 개발
  - 주요 종속법인인 명신산업과 핫스탬핑 부품 제조 일원화 체계 구축
- 국내·외 계열사를 통한 사업부별 시장환경 및 제도 변화에 신속 대응

###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 자체 연구개발, 국가 R&D 과제 수행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기술경쟁력 구축
- 특허 권리 확보를 통한 기술진입장벽 구축
  - 주요 기술 관련 특허 100건 이상 보유

##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 핵심기술

- 고강도·초경량화를 이루는 핫스탬핑 기술력
  - 관련 설비 및 금형 기술력 보유
- 경량소재를 적용한 고부가가치 부품 개발 기술력
  -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을 적용한 경량화 부품 개발

### 적용제품

Door Module



Floor Module



Side Module



## 시장경쟁력

### 국내 자동차 차체용 부품 시장현황

년도	시장규모	성장률
2016년	21조 2,358억 원	연평균 2.15%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3년	24조 6,457억 원	

### 국내·외 다변화된 매출처 확보

-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매출처 다변화
  - 현대·기아자동차 외 Tesla, Byton 등 해외 거래처 구축

## 최근 변동사항

### 전기차 시장 활성화 지속

- 정부 주도 전기차 시장 활성화 지속
  - 전기차 지원 대수 및 예산 대폭 확대
- 전기차 핫스탬핑 부품 적용 확대에 따른 긍정적 전망
  - 향후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기대

### 사업 확장 진행

- GM 군산공장 인수를 통한 전기차 생산시설 확보
  - 전기차 제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 진행

## I. 기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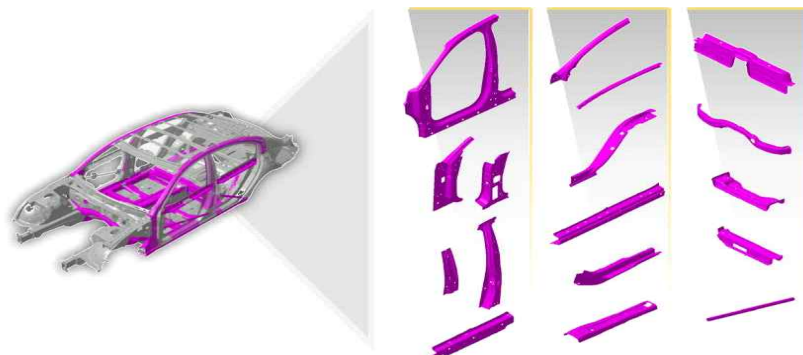
### 핫스탬핑 기술을 보유한 자동차 차체 부품 제조 전문기업

자동차 차체 부품 제조 전문기업으로, 국내·외 계열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핫스탬핑 기술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 ■ 기업 개요

엠에스오토텍(이하 동사)은 1990년 9월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주요 생산품목은 자동차 뼈대를 구성하는 Moving Part 모듈, Side Part 모듈, Floor 모듈 등의 차체 부품이다. 명신, 명신산업, 명신산업황성 심원테크, 심원개발을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계열사로는 MSI(인도), MSB(브라질), 심원상속(중국), 심원미국(미국) 등이 있다.

그림 1. 주요 생산품목(자동차 차체 부품)



출처: 동사 홈페이지(2021)

#### ■ 최대주주 및 관계회사 현황

동사는 국내 9개, 해외 6개의 계열사가 있으며, 주로 자동차 차체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최대주주는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심원과 이태규 사장이다. 이태규 사장은 이양섭 회장의 장남이고, 심원은 2006년 6월 설립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최대주주는 송혜승이다.

표 1. 종속회사 현황

종속회사	지분율(%)
명신산업	43.60
명신산업황성	100.00
명신	65.60
MSI(인도)	95.00
MSB(브라질)	99.90

표 2. 주요주주 현황

주요주주	지분율(%)
심원	16.14
이태규	13.99
이수연	1.39

\*출처: 3분기 공시자료(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 대표이사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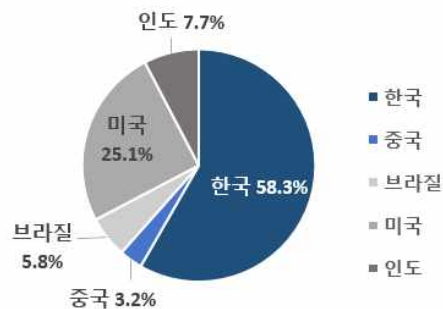
김범준 대표이사는 고려대학교 경제학 전공자로, 1989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하였으며 2006년 동사 인도법인장 상무, 브라질법인장 전무를 거쳐 2020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관련 업계 40년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주도해오고 있다.

## ■ 주요 제품 및 고객사

동사의 주요 제품은 Moving Part 모듈, Side Part 모듈, Floor 모듈 등으로, 자동차 뼈대를 구성하는 차체 부품이다. Moving Part는 문, 트렁크 뚜껑, 후드 등으로 구성되고, Floor Part는 차체의 바닥을 형성하는 부품 모듈을 말한다. Slide Part는 자동차 바디의 기동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정면 및 측면 충돌 시 충돌에너지를 흡수하여 차체 변형에 의해 승객에게 전달되는 충격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2020년 3분기 기준 주요 고객은 현대·기아자동차와 미국의 Tesla, 중국의 Byton 등이 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인도, 브라질, 중국으로, 2020년 3분기 기준 미국이 전년 동기 대비 3.8% 높은 25.1%로 가장 높으며 중국은 3.2%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품별 매출 비중은 자동차 차체부품 94.4%, 금형 및 설비 5.6%로 확인된다.

그림 2. 주요 국가별 매출비중



출처: 3분기 공시자료(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 연구개발 활동

동사는 자동차 차체 부품 사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경량소재 적용 공법을 적용한 고강도/초경량 제품 개발,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핫스탬핑 라인 개발 등 발 빠른 신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전기차 업체인 Tesla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인도, 브라질 등으로 진출하여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 현대·기아자동차의 매출 의존도를 낮춰가고 있다.



또한, 기술연구소를 운용하며 매년 일정 비용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R&D 사업을 기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세하게는, 다중소재가 적용된 경량차체 제조공정 및 접합 시스템 개발, 소재 융합 및 차체 모듈화 연구 시스템 구축 등 경량화와 친환경이라는 산업 트렌드에 맞춰 그린카 차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국내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과 함께 국가 R&D 과제 및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성과로 핵심 기술과 관련하여 100건 이상의 등록 특허를 구축하고 있다.

표 3. 국가 R&D 과제수행 실적

과제구분	과제명	과제관리(전문)기관	총 연구기간
주관과제	전자선 경화기술을 이용한 자동차 부품 소재의 신뢰성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4.01 ~ 2022.12.31
주관과제	1-PIECE 알루미늄 도어 인너를 위한 알루미늄 핫스탬핑 도어 제조 기술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8.09.01 ~ 2019.12.31
주관과제	생산성 30% 향상을 위한 고주파 유도가열 이용 차세대 하이브리드 핫스탬핑 라인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5.05.01 ~ 2018.04.30
주관과제	통전 성형을 이용한 1Gpa이상 초고강도강 및 AL5000계 차체 부품의 제조 기반 기술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3.06.01 ~ 2018.07.31
주관과제	스몰오버랩 충돌법규 대응용 내충격강도 1.8Gpa급 경량 다중소재융합 차체프레임 제조 기술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5.06.01 ~ 2018.05.31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Ⅱ.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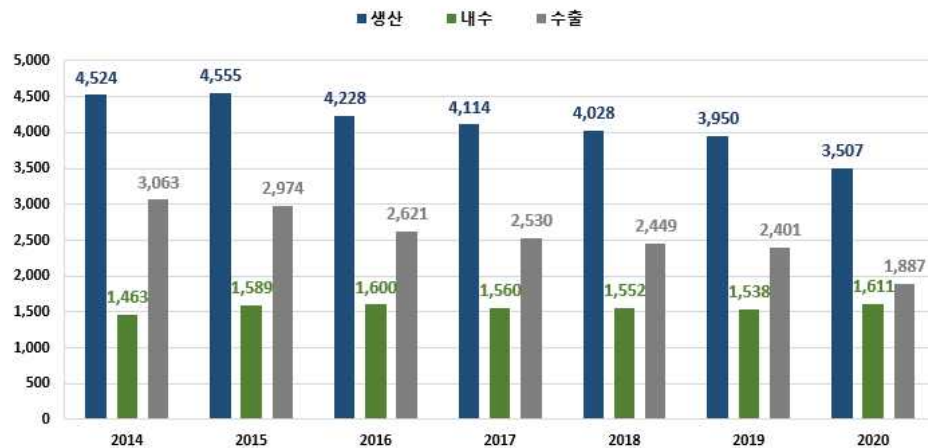
### 자동차 산업, 정부 정책 및 친환경 자동차를 통한 회복세 기대

자동차 산업은 COVID-19에 의한 경기악화로 전반적인 생산실적 감소 추세를 보인다. 다만, 정부의 노후차 교체지원 등의 지원 정책 및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성장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 ■ 자동차 산업 동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통계(2021) 및 KISLINE 산업보고서(2020)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자동차 산업 생산실적은 내수 증가에도 수출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1.2% 감소한 350.7만 대로, 국내 판매 161.1만 대 및 수출 188.7만 대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455.5만 대를 생산한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인다.

그림 3. 국내 자동차 산업 규모 (단위 : 천 대)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통계(2021) 및 KISLINE 산업보고서(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2020년 하반기 COVID-19 재확산의 영향으로 방역 강화와 일부 유럽 지역에 봉쇄령이 내려진 가운데, 수출지역 입국 및 이동제한,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21.4% 감소하였다. 내수의 경우,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확대 정책과 노후차 교체세제지원 정책, 업체의 신차출시 지속 등으로 내수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각국 정부의 경제활동 재개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는 2021년에 확보될 것으로 보이나, 수요 위축, 재고물량 적체 등 제한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은 COVID-19 영향에서 안정화를 보이며 유럽, 미국 등 주요 국가와 신흥국을 중심으로 전년도 기저효과 및 내수 부양에 따른 중국 수요 확대를 통해 회복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수출 시장은 미·중 무역분쟁에도 미국의 수요 회복과 EU지역의 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차 수요 증가,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이머징 국가의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성장세가 기대된다. 내수의 경우, 국내 경기 회복세에 따라 소비 심리 개선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나, 소비여력 회복 지연,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 등의 정부 지원책과 업계 신차출시가 전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점은 내수 감소로 작용할 수 있다.

## ■ 전기차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

글로벌 환경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기술의 상용화, 충전소 확대, 구매 보조금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국내 전기차 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차보급로드맵(2019)에 따르면 2013년 산업수요 대비 비중이 0% 대였던 전기차 비중은 2019년 2.4%까지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14.4% (약 25만 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국내 전기차 시장규모 (단위 :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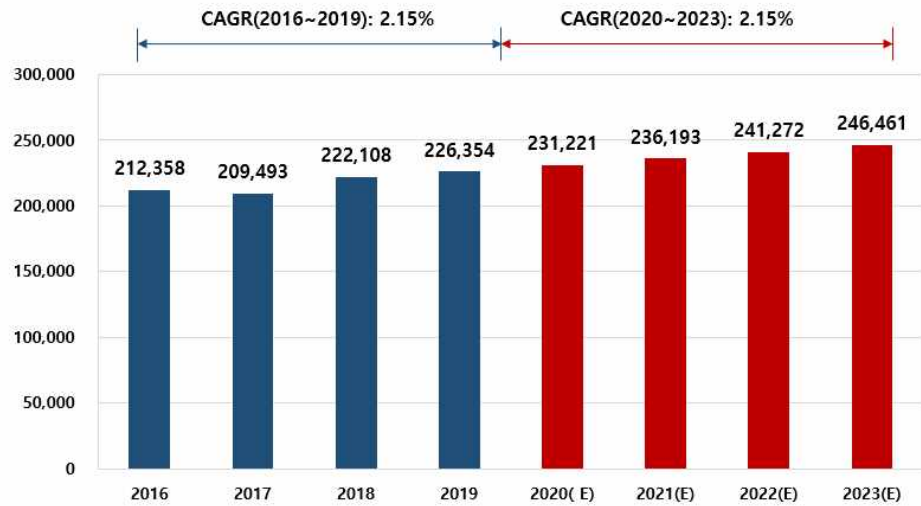
\*출처: 친환경차보급로드맵(2019),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산업 동향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0)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시장 출하금액은 2016년 21조 2,358억 원에서 2019년 22조 6,354억 원으로 연평균 2.15%(CAGR) 증가하였으며, 동일 추세를 가정할 시 2023년에는 24조 6,457억 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국내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억 원)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해당 산업은 영세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참여하고 있으며, 구매/납품기업 간 밀접한 관계를 맺고 복합적인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다. 전방산업인 자동차 경기 침체 시 완성차 기업의 압박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가 존재하나, 꾸준한 자동차 수요 확대에 따른 신수요 및 교체수요가 존재한다. 또한, 최근 강화된 연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량화 부품의 수요가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경량화 기술개발을 통한 수요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자동차 부품 산업 특징

구분	내용
다양한 인프라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부품 산업은 완성차 산업과 분업적인 생산체계를 형성하고 있음.</li> <li>- 단순부품에서 고도의 부품까지 다양한 품목이 있어 소재, 공정, 규격, 정밀도, 공학적 기초 등이 있으며, 이에 분업구조와 전문화를 필요로 함.</li> </ul>
제조 기업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업원 50명 이하의 영세기업부터 1만 명이 넘는 대기업까지 격차가 큼.</li> <li>- 부품 전문제조 기업이 있으나, 전기전자/기계부품 제조기업이 일부 참여.</li> </ul>
완성차 업체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성차 업체는 매년 부품 기업에게 납품가격의 인하 및 엄격한 품질 기준을 제시함.</li> <li>- 부품 업체의 시장제품이 아닌 납품처의 시장제품으로 고객에게 거래되므로 품질, 가격, 납기 충족이 필요함.</li> </ul>

\*출처: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미래자동차(2019),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Ⅲ. 기술분석

#### 견고한 원천 기술력 및 자체 개발 역량을 통한 신성장 동력원 창출

기존 핫스탬핑 공법을 발전시킨 하이브리드 핫스탬핑 공법 개발 등의 원천 기술력, 경량소재 부품 개발 등을 통해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 연비 규제 강화에 따른 자동차 경량화 기술 개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연비 규제에 따라, 연비 개선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관련 기술에는 ① 엔진/구동계(파워트레인) 효율 향상, ② 공기저항감소(Aero dynamic) 디자인, ③ 대체 에너지 구동기술, ④ 자동차 경량화 등이 있다.

엔진과 동력전달을 위한 구동계의 개선은 연비 개선 효과가 높지만, 이미 완성형 기술에 해당하여 추가 기술개발에는 높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존재한다. 공기저항감소 디자인은 차량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공기저항을 최소화하여 연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비용은 적게 들어갈 수 있으나 일괄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품의 다양성을 해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주로 대체 에너지 구동기술과 자동차 경량화 관련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체 에너지 구동은 기술개발이 오래 걸리고 상대적 비용이 높기 때문에 부품 업계에서는 차량 경량화가 빠른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자동차 무게가 10% 감소하면 연비는 3~8%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차체 부품은 전체 중량의 약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해당 부품을 중심으로 경량화 관련 연구 및 적용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림 6. 1,500kg 승용차 기준, 10% 경량화에 따른 효과



출처: 현대자동차(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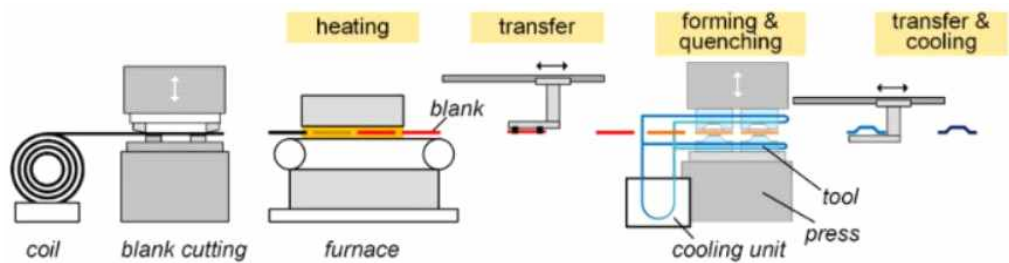
자동차 경량화 기술은 구조 최적화, 제조공법의 개발 및 개선, 적용 소재의 경량화로 나눌 수 있다. 요구 강도에 맞는 최적화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소재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소재에 적용되는 공법을 개선하여 강도를 높이는 등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거나 정밀한 가공을 통해 소재 사용량을 줄일 수 있으며, 기존의 철강소재를 경량소재로 대체하거나 접합하는 방법으로 경량화 할 수 있다. 구조 최적화 기술에 있어서 대부분의 선진기업은 경량화 및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소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기술을 완성하였으므로, 제조공법 개선, 소재 경량화에 대한 연구개발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 제조공법 개선을 통한 경량화 실현

### ▶▶ 경량화를 이루며 높은 강도를 내는 핫스탬핑 기술

대표적인 경량화 제조공법에는 핫스탬핑이 있다. 핫스탬핑이란, 소재를 900℃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한 후 금형에서 프레스 성형을 함과 동시에 급랭시키는 기술로, 가벼우면서도 강한 강판을 제조하는 공법이다. 고온으로 가열 시 강판 조직은 오스테나이트를 형성하게 되고, 금형을 이용하여 성형과 동시에 급랭시킴으로써 마르텐사이트로 변화되어 조직이 더욱 단단해지고 조밀해지기 때문에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해당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두께를 유지하면서도 강도는 2~3배(1.5GPa~1.7GPa) 높일 수 있어, 기존 방식 대비 약 20%의 자동차 경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강판은 고온으로 가열되면 연성이 좋아져 성형이 매우 쉬워지기 때문에, 핫스탬핑을 통하여 제조되는 강판은 우수한 가공성을 보이며 정교한 가공이 가능하여 소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그림 7. 핫스탬핑 공정 개요



출처: GESTEMP(2020)

### ▶▶ 세계 최고 수준의 핫스탬핑 기술력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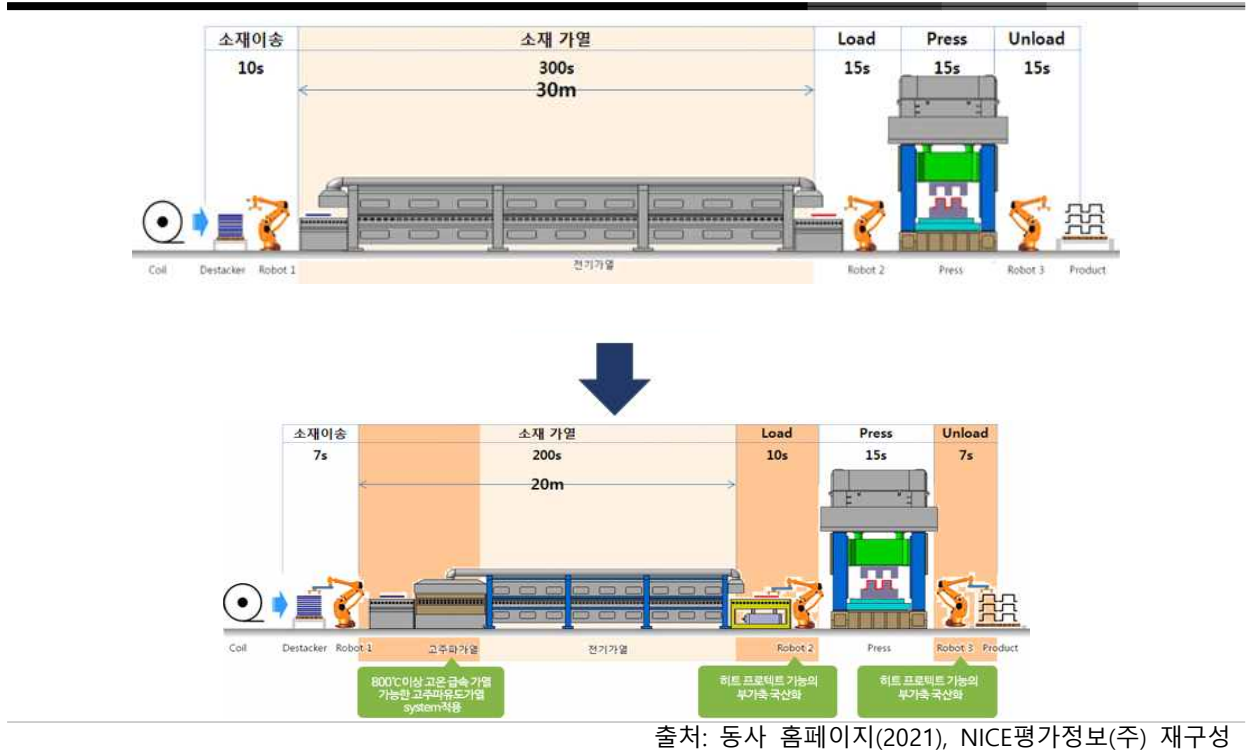
동사는 하이브리드 핫스탬핑 라인을 개발하였으며, 주요 종속법인인 명신산업은 독자적인 가열로 및 프레스 조합의 설비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핫스탬핑 기술력과 양산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다. 개발된 기술은 철강 소재 가열 방식이 고주파 유도가열로와 전기로를 결합한 방식으로, 소재 온도를 단시간에 올려주며 기존 전기로 방식보다 원하는 온도까지 가열하는 시간을 줄여준다. 가열시간 단축으로 가열로 길이는 기존 방식의 절반이며 공장 가동 시간에만 전기를 사용해 설비 비용 및 에너지 절감 효과가 탁월하다.

그림 8. 핫스탬핑 적용 부품



출처: 동사 홈페이지(2021)

그림 9. 개발 기술 컨셉(기존공정(상), 개발공정(하))



또한, 핫스탬핑 공정은 열간성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급랭을 하는 공정이므로 고온 가열된 강판을 금형에서 성형 시에 신속히 그 열을 빼앗아 냉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을 반복할 시 금형으로 전달된 열이 축적되어 이 후의 강판은 급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마르텐사이트로의 변태가 일어나지 않게 되므로 원하는 강도의 제품을 얻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강판으로부터 빼앗은 열이 금형에 축적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술은 고강도 제품을 얻기 위한 핫스탬핑 공정의 핵심 요소기술이다. 동사는 기존의 Gun drill/pocket 방식의 냉각구조에서 복수의 블록을 이용한 샌드위치 타입의 핫스탬핑 금형을 개발하여 냉각시간을 단축하였으며, 물 대신 냉매를 활용하여 냉각성능을 개선함으로써 전체 사이클 타임을 단축시키고 품질을 개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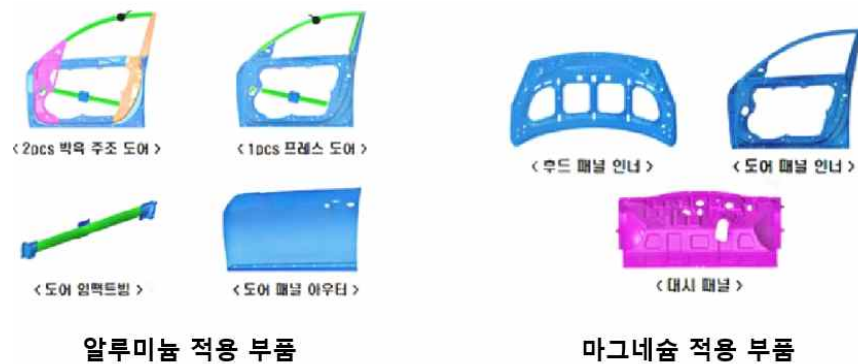
## ■ 소재 개발 및 개선을 통한 경량화 실현

소재 경량화는 경량화 효율이 가장 높은 방식으로, 우수한 물성을 가지는 경량 신소재의 개발과 기존 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는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주로 고장력강, 알루미늄 합금 및 마그네슘 합금 등 경량소재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적용 가능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소재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동시에 고정밀 부품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성형공정 기술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 경량소재를 적용한 고부가가치 부품 개발 기술력

동사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을 적용한 부품 제조공법을 개발하여 알루미늄 도어, 마그네슘 대시보드를 상용화하였으며, 더 높은 강성 및 생산성을 확보하고자 이중소재의 용접/접합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CFRP(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를 활용하여 차체 부품을 제작하는 국책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해당 기술은 전자선 경화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공정 대비 200% 이상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되고 난성형/난접합의 알루미늄 소재를 대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경량소재 적용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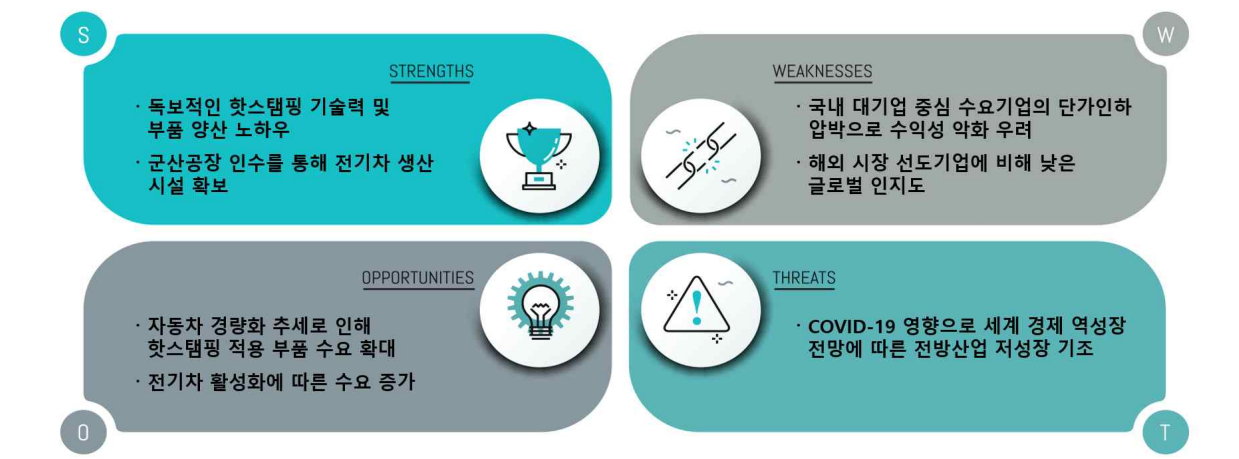


출처: 동사 홈페이지(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 SWOT 분석

그림 11. SWOT 분석



\*출처: NICE평가정보(주)

### ▶▶ (Strong Point) 독보적인 핫스탬핑 기술력 및 부품 양산 노하우 구축

동사는 하이브리드 핫스탬핑 라인을 개발하였으며, 주요 종속법인인 명신산업은 독자적인 가열로 및 프레스 조합의 설비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핫스탬핑 기술력과 양산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Tesla 전기차 ‘모델3’ 부품 공급을 시작으로 현대기아자동차의 매출 의존도를 낮춰나가고 있다. 나아가 전기차 위탁생산을 목표로 명신을 주체로 하여 군산공장을 인수하였으며, 부품 생산 기업에서 자동차 OEM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 (Weakness Point) 완성차의 압박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

동사의 제품은 자동차 경기 침체 시 대기업 완성차 중심 수요기업의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존재한다.

### ▶▶ (Opportunity Point) 글로벌 이슈에 따른 경량화 기술 적용 부품 확대

강화된 연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품 경량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량화를 이루며 높은 강도를 내는 핫스탬핑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전기차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전기차의 최대 단점인 짧은 주행거리를 개선하고자 차체 및 배터리팩 경량화를 위해 핫스탬핑 부품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산업 동향은 독보적인 핫스탬핑 기술력을 갖춘 동사의 기회 요인이 될 것이다.

### ▶▶ (Threats Point) 전방산업 부진 및 부품 기업 간의 높은 경쟁강도

COVID-19의 영향으로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동사가 속하는 자동차 산업 역시 해외 판매수요 위축에 따른 생산량 조정 등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세계 경제가 재개되고 있으며, 전기차 등 친환경 신차의 수주 물량 증가로 인해 점차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IV. 재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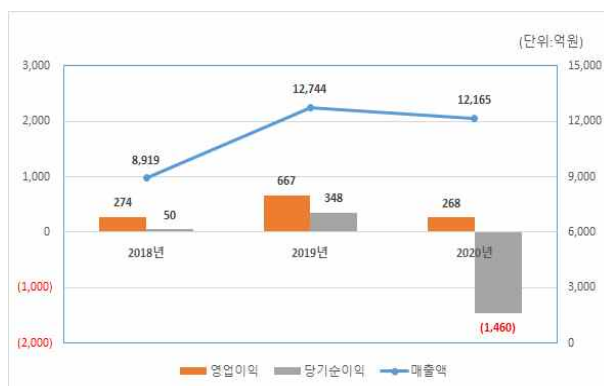
###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 전문업체

동사는 1990년 설립되어 2010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 중으로 경상북도 경주시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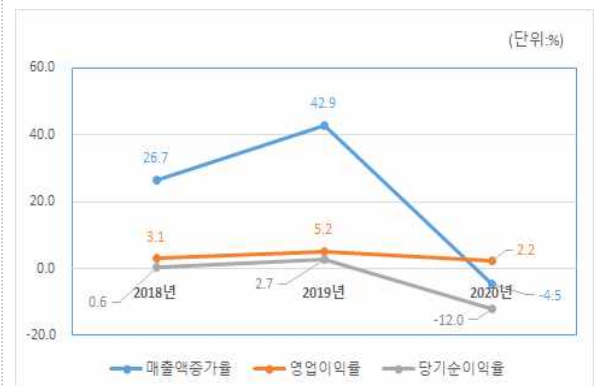
#### ■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부진으로 매출 감소

동사는 현대·기아자동차와 미국의 Tesla, 중국의 Byton 등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인도, 브라질, 중국 등이 있다. 2020년 결산 기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과 수요 부진 등에 따라 국내외 실적 모두 감소하면서 1조 2,165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였다.

그림 12.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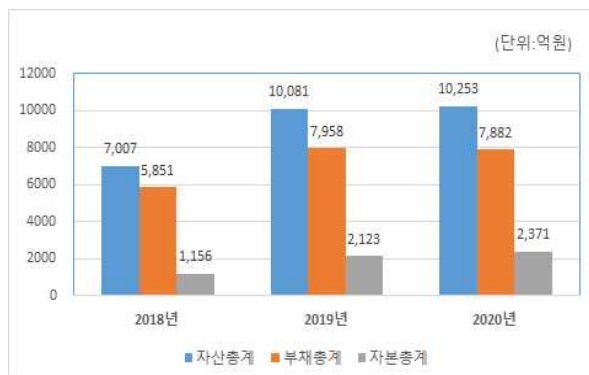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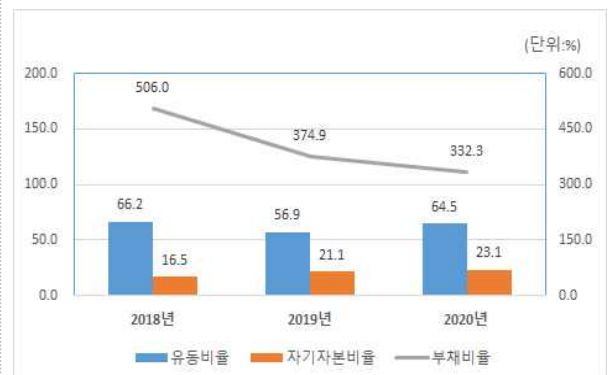
증가율/이익률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그림 13.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부채총계/자본총계/자산총계 추이



유동비율/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 ■ 매출처 다각화 및 전기차 시장 활성화로 성장 기대

동사는 매출의 대부분이 현대·기아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고, 관계회사 또한 현대·기아자동차에 납품하고 있는 상태로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단일 고객사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세계 완성차 업체에 협력사 등재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자체 전기차 제조 생태계 구축을 위해 GM 군산공장을 인수하여 사업 확장을 진행중으로 전 세계적인 친환경·에너지 산업 중요성 부각에 따른 전기차 시장 활성화로 성장이 기대된다.

동사의 매출액은 2018년 8,919억 원(+26.7% YoY)에서 2019년 1조 2,744억 원(+42.9% YoY), 2020년 1조 2,165억 원(-4.5% YoY)을 기록하는 등 매출 증가세를 보이다 2020년에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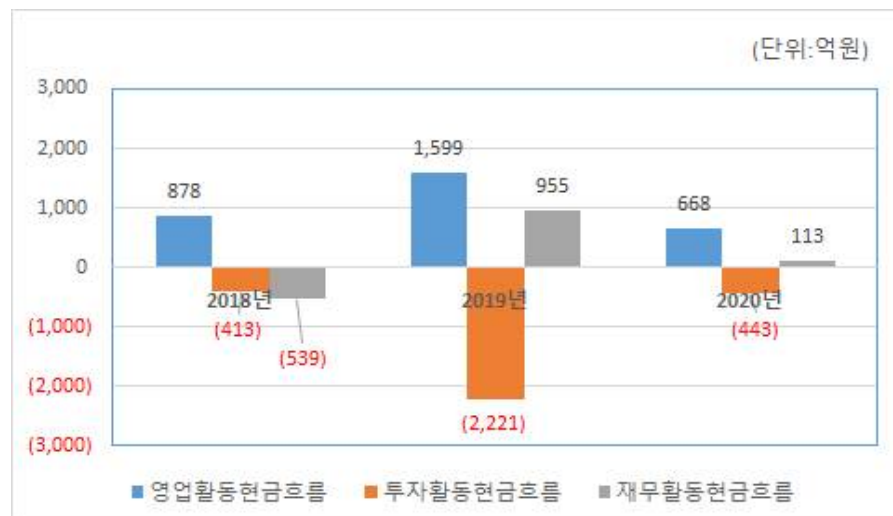
동사의 매출원가율은 2019년 89.0%, 2020년 91.0%로 원가율이 상승하였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2019년 5.2%, 2020년 2.2%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하락하여 산업평균 대비 저조한 영업수익성을 나타내었다. 동 기간 영업이익은 667억 원, 268억 원으로 매출 감소와 더불어 영업이익도 감소하였다. 한편, 전환사채 및 전환우선주의 전환대상 목적물인 보통주의 시가 상승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손실 영향으로 매출액순이익률이 2019년 2.7%, 2020년 -12.0%를 기록하며 적자 전환하였다.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332.3%, 자기자본비율 23.1%, 유동비율 64.5%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 ■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유입 지속

2020년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당기순손실 시현에도 불구하고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자산 항목인 파생상품거래손실 1,083억 원과 감가상각비 등의 영향으로 668억 원의 현금 유입을 기록한 가운데, 유입된 자금과 주식 발행을 통해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현금 증가를 시현하였다.

그림 14.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자동차 차체 부품은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친환경 자동차 시장 성장세에 따라 핫스탬핑 공법기술이 적용된 부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전기차 부품에 대한 매출 신장이 기대된다.

#### ■ 주요 이슈 및 향후 전망

##### ▶▶ 제한적 성장 속 정부 주도의 전기차 시장 활성화 지속

COVID-19 이슈에 따라 글로벌 완성차 시장의 수요 정체는 당분간 이어져 자동차 업계는 공급 확대보다 수익구조 효율화 등의 전략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자동차 부품 업종의 단기간 내 실적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자동차 관련 환경규제 준수를 위해 주요 국가들은 전기차 지원 및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등 COVID-19 확산에도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1년 1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 계획을 발표했으며, 전기차 지원대상을 99,650대에서 121,000대 규모로, 지원예산은 8,174억 원에서 10,23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완성차 업계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이동이 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기차의 경량화를 통해 주행거리를 확대하고자 기존 내연기관 차량 대비 핫스탬핑 부품 적용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 ▶▶ 핵심 기술 기반으로 전기차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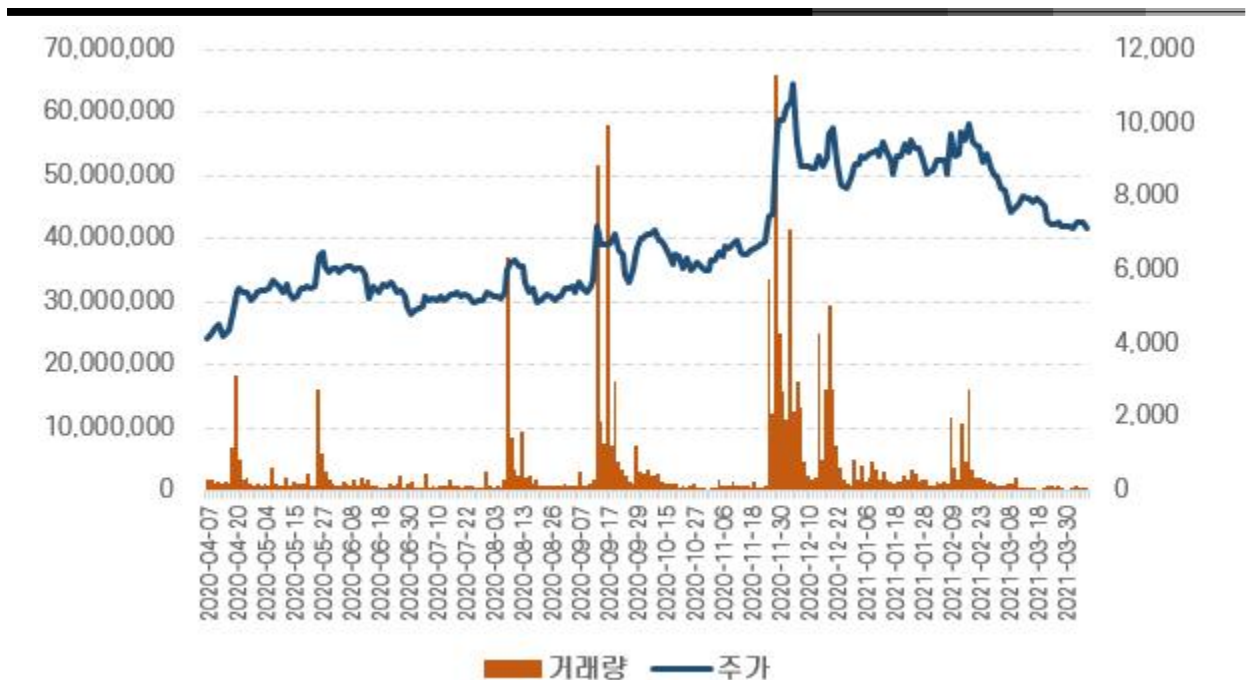
동사는 30여 년의 업력을 통해 확보한 독보적인 핫스탬핑 공법을 기반으로 전기차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였으며, 해당 산업의 선도기업인 Tesla에 부품을 공급하며 입지를 굳혔다. 나아가 자체 전기차 제조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0년 12월 상장한 자회사 명신산업과 함께 GM 군산공장을 인수하였다. 단순 주문자위탁생산인 OEM 방식으로 시작하여 주문자가 원하는 모델을 개발, 생산하는 ODM 모델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대규모 투자로 인한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신규 고객사향 납품이 가시화될 경우 전기차 수혜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 최근 6개월 이내 발간 보고서 없음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Kisvalue(2021.04.)